



# ICID 제54차 집행위원회의 참석 보고

## Report on ICID the 53rd IEC Meeting

### 김 채 수

KCID 전임이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1. 머리말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는 각국의 유치신청에 의해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국가에서 매년 장소를 달리하여 IEC (International Executive Council Meeting) 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총회는 매 3년마다 개최한다. 작년에는 총회가 개최되었고 올해는 제54차 집행위원회의와 더불어 제20차 유럽지역회의가 프랑스 국가위원회(AFEID)의 주관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6일간) 프랑스 몽펠리에 국제회의장(Le Corum)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세계 45개국에서 374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배수위원회(KCID)에서는 허유만 회장을 비롯한 8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활발한 기술교류 및 광범위한 활동을 펼쳤다.

#### 2.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회의는 이탈리아 출신 ICID 명예 부회장의 서거에 대한 묵념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회의 주제는 회장인 Mr. Ir Keizrul bin Abdullah의 사죄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ICID WatSave상은 기술상, 청년분과 기술상, 물관리 개선상의 3개 분야에 수여되었으며, 상금은 일본관개배수위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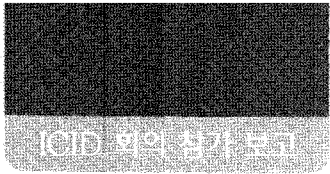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기술상은 습윤전선측정기(wetting front detector)를 개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r. R. J Stirzaker 에게 수여되었다. 원리는 휴대형 탐침봉을 땅속에 삽입하면 수분함량을 즉석에서 측정하므로 발판개 일정을 수립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청년분과 기술상은 미국의 Mr. Tony L. Wahl에게 수여되었으며, rms 유량 측정장치인 Long-throat 개거 및 광정위어(broadcrest weir)의 WinFlume software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다. 물관리 개선상은 파키스탄의 Dr. Muhammad Akram Kahlowan으로 Indus 강 유역 내외의 수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 업적으로 수상하였다.

ICID 임원 선출은 회장은 매 3년마다, 부회장은 매년 선거가 있다. ICID 부회장은 총9명으로 임기는 3년간이며 매년 3명씩 퇴임하고 신규로 3명을 선출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년간 활동한 우리위원회의 권순국 명예부회장(서울대학교 교수)을 비롯하여 캐나다의 Dr. C. Madramooto 교수, 오스트레일리아의 H. Malano 교수가 퇴임하고 그 후임자에 대한 선거가 있었다.

차기 부회장으로는 프랑스의 Dr. Alain Vidal (Cemagref 국제교류사무소장) 우즈베키스탄 Mr. Filipenko Larisa(아랄해 수자원청 이사), 인도 Mr. Belsare Sanjay(수자원청장)이 선출되었다.

또한 ICID는 크게 재정분과상임위원회(PFC : Permanent Finance Committee), 전략분과상



임위원회(PCSPOA : Permanent Committee on Strategy Planning and Organizational Affairs), 기술분과상임위원회(PCTA : Permanent Committee for Technical Activities)로 나눌 수 있으며, 재정분과에서는 총회, 집행위원회의 등 재정에 관한 업무를 검토하며, 전략분과에서는 지역분과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다.

재정분과에서는 분과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이 퇴임하고 4명의 신규위원(임기 6년)이 선임되었으며, 신임위원장은 영국위원회 Mr. Peter Lee가 선임되었다. 또한 캐나다 위원회로부터 CAN \$110,000 및 화란 정부로부터 EUR 300,000의 재정지원이 있었음이 보고 되었다. 또한 재정지원금은 현재까지 총회 개최국에서 본부로 지원하는 지원금은 다음 총회 (제19차 총회 2005년 : 중국

북경) 부터 집행위원회 개최지에서도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검토하였다. 잠정적으로 등록비의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정확한 분담금은 사무국에서 심층 분석한 후 결정하는 안을 상정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전략분과 상임위에서는 각 지역분과에서 검토된 보고 사항이 추진되었고, 특히 아시아지역 분과에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과 같은 저개발국가위원회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제2회 아시아지역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회원국들에 협조 당부가 있었다. 내년 부터는 각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우수 활동분과위원회상(Best Performing Workbody Award : BPWA)을 수여할 것을 의결하였다.

차기 ICID 회의 일정 계획

행 사 명	일 자	장 소	의 제
아시아지역워크숍	2003. 11. 10~12	타이완, 타이페이	수리계의 유지관리 및 지속가능수자원개발
제2회 아시아지역회의	2004. 3. 14~17	호주, 예추카	유역내 관계
제55차 집행위원회회의	2004. 9. 1~8	러시아, 모스크바	식량생산과 물
제1회 아프리카지역회의	2004. 12	이집트, 카이로	가난경감을 위한 종합수자원관리
제21차 유럽지역회의	2005. 5. 16~20	독일, 폴란드	
제19차 총회 및 제56차 집행위원회회의	2005. 9. 10~18	중국, 베이징	
제5차 아메리카지역회의	2006. 1	멕시코	
제57 차 집행위원회회의 및 제3회 아시아지역회의	2006. 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신규
제58차 집행위원회회의	2007.	미국, 새크라멘토	
제22차 유럽지역회의	2007.	이태리	신규
제4차 아시아지역회의	2007.	이란, 테헤란	
제20차 총회 및 제59차 집행위원회회의	2008.	파키스탄, 라호르	
제60차 집행위원회회의 및 제2차 아프리카지역회의	2009.	나이지리아, 아부자	

기술분과상임위에서는 각 기술분과 위원회의 신규 분과위원의 제청을 건의하였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ICID 논문지 편집분과위원회(EB-JOUR : ICID Journal Editorial Board)에 권순국 명예부회장 (서울대 교수) 및 농지 및 수자원 종합관리분과위원회(Working Group on Integrated land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 WG-ILWRM)에 김채수 전임이사 (농업기반공사 기반정비연구실장)가 신규분과위원으로 추인되었다.

ICID 본부 사무총장인 Dr. C. D. Thatte씨가 연말로 임기가 종료되어 신임 사무총장으로 인도 출신의 Mr. M. Gopalakrishnan씨를 선임하였다.

차기 회의의 기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재확인 및 신규로 멕시코 및 이태리 국가위원회에서 지역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의결되었다.

### 3. 아시아 지역분과회의

아시아 지역분과에서 인도국가위원회(INCID)는 제1회 아시아지역회의 및 워크숍 (2001 서울)의 권장사항 실행을 위한 연구활동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2003년 11월 타이완의 타이페이에서 개최되는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워크숍” 및 2004년 3월 호주 에추카에서 개최 예정인 “제2회 아시아 지역회의”에 대한 보고 및 각 국가 위원회에서의 많은 참가 권유가 있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가위원회에서는 제3회 아시아지역회의에 대한 개최 계획 설명이 있었다.

일본국가위원회에서는 “관개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워크숍”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인도, 한국, 이란, 타이완 IWMI 및 일본이 참가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일본 농림수산부는 “논의 물과 환경에 대한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n Water and Ecosystem on in Paddy Field, INWEPF)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논외 다원적 기능의 추가적인 발굴 및 지속적인 검토를 위해 일본국가위원회와 공조하기로 하였다.

### 4. 「지속가능 연안개발」 워크숍 개최

우리 위원회에서 주창하여 구성된 지속가능연안개발분과 (WG-STDA :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idal Areas) 위원장 : 박상현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장)에서는 제2회 지속가능 연안발전 워크숍을 영국 수리연구소의(Hydraulic Research Center) Dr. Jonathan Simm의 주제로 9월 17일 14:30 ~ 18:00까지 개최되었다.

KCID에서는 제1회 워크숍에 이어 제2회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에도 US\$ 3,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워크숍 개최비로 지원하였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Proceeding 편집·발간 및 워크숍 개최에 관한 제 준비사항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본 워크숍에서는 ICID 부회장인 Dr. S. Taniyama(일본)의 Keynote Address로 시작하여 6개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영득 회원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독일 Dr. Bernd Probst(주정부 해안보호국장)를 비롯하여 10개국 53명이 참석하여 환경친화적 간척지 개발방안, 수질보전 대책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5. 전시 및 홍보

집행위원회 회의장 주 출입구 옆에 설치된 게시판을 활용하여 각 국가위원회에서는 홍보 및 전시를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등록 데스크 및 회의장

주출입구 앞의 게시판을 활용토록 배치되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소였다.

전시기간은 2003. 9. 15 ~ 9. 20 (6일간)이었으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상황과, 논의 다원적 기능 및 한국의 농업문화에 대한 활동을 홍보하였다. 우리 분야의 활동을 강조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및 농어촌연구원의 활동사항도 더불어 홍보하였다.

## 6. 국제 기술교류

우리 분야의 최대 현안 사항인 새만금문제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의 전문가들과 몇 차례의 협의를 가졌다. 특히 ICID 명예회장인 화란의 Prof. Ir. B. Schultz는 화란 정부의 공공사업성 고문 이면서 교수로서 우리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독일 국가위원회와도 협조관계를 갖기로 하였으며, 특히 독일 사무총장은 독일 수리연구소 소장으로서 앞으로 독일과 농촌 개발 및 농촌관광, 친환경 개발, 농업정책 등에 관한 기술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특히 독일의 농업문제에 대한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한편 독일 위원회의 주선으로 독일 주 정부 해안보호국장과 독일의 해안보호 방안 및 갯벌 보호 방안에 대한 개별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여 주었다. 독일은 현재 농지가 남아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지만 기존의 농지가 침식되지 않도록 해안 보호를 하고 있다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환경 단체에서 주장하는 농지를 습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갯벌 보호는 해안선 바깥의 해안시설 밖의 부분을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로 되어 있다는 것처럼

개탄할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호주 국가위원회 (회장 Mr. Stephen Mills)에서는 농업기반공사와 멜버른 대학교와 상호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개발 및 수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시행하기를 제안하였다.

한편 일본 농업공학연구소의 전문연구실과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의 연구실간에 실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연구실이 많아 일일이 실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농업공학연구소 및 농어촌연구원차원의 기술협약을 체결하면 양국의 전문연구실간에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농업공학 연구소와 농어촌연구원 단위의 기술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 7. 결 언

성공적으로 개최된 2001 서울대회인 ICID 제 52차 집행위원회의 및 제1회 아시아지역회의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기술교류의 제안, 각 분과위원회 참석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가 활동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국제적인 비중이 향상 될 것이다. 앞으로 대만(2003. 11), 호주(2004. 3) 중국(2005. 9), 말레이시아(2006)등에서 회의 개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회의는 우리위원회에서 주창하여 이루어진 회의이다. KCID는 아시아 제 국가와 공동 보조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인접국가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